

Gary Yates 박사, Jeremiah, 강의 6, 도서 개요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세션, 예레미야서 개요입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형성과 구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영감을 주셨는데, 그 책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책으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도록 이번 세션에서는 예레미야서의 개요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더 큰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단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책에서 개별 구절을 뽑아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구절보다 더 흥미로운 특정 구절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나무뿐만 아니라 숲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책이 하나의 단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면 거기에 있는 개별 구절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몇 가지 인용문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확실히 어려운 책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이 연구와 관련하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언급하기 때문에, 가끔 영상에서 '그게 어디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러나 Andrew Sheed가 그의 책 A Mouthful of Fire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는 길고, 반복으로 가득 차 있고, 연대기가 비선형적이며, 한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렇다면 RP Carroll은 좀 더 냉소적인 방식으로 현대 독자들에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사실상 책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 예레미야서에 대해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이상해 보이는 이 책이 어떻게 우리가 읽던 책들과 이렇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레미야서가 아마도 현재 Kindle에 있는 어떤 책과도 같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 책을 하나의 단위로 읽는 방법, 책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울서신과 매우 다르다. 예레미야서는 복음서와 다르다. 예레미야서는 창세기, 시편, 잠언 등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구약성서의 다른 책들과는 심지어 다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 책을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다소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조합된 것으로 보고 싶어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매우 중요한 주석서인 『예레미야서 국제비평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매케인은 예레미야서를 비교합니다. 그는 그것을 롤링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예레미야서를 언덕에서 굴러오는 눈덩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굴러다니는 말뚱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의 초기 메시지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와 같은 자료를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눈덩이가 그다지 응집력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그의 이해입니다. 내 생각에 Walter Brueggemann은 이 책에 대한 매우 포스트모던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 다양한 편집자와 편집자들의 영향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위기와

망명자들의 고통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다양한 목소리들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배 생활에 있는 이 집단의 사람들과 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불일치한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책을 구성한 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책에서 나오는 훨씬 더 질서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한 권으로 묶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데 익숙했던 것처럼 책이 연대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축소하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는 순서와 디자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루이스 스톨만(Lewis Stuhlman)은 예레미야서를 다루면서 예레미야서를 언급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혼돈 속의 질서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서를 볼 때 나타나는 무질서가 사실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일치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르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여러 감옥과 여러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대기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은 왜 없나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예레미야의 삶의 무질서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종종 도망가서 설교해야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기록한 다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의 무질서를 반영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함락은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진행과 전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구절은 예레미야서 1장 9절의 맨 처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나라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으니 보라.

그리고 나서 그는 예레미야 사역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다섯 개의 동사를 우리에게 줍니다. 당신의 말이 무엇을 하도록 고안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열방 모두를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단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애굽과 바벨론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45장까지의 주된 초점입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에게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46장부터 51장은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신탁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공하고 책의 두 번째 부분과 연결되는 25장은 다시 그의 메시지가 국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책의 의도와 순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뽑다, 파괴하다, 파괴하다, 전복하다, 세우다, 심다라는 이 여섯 개의 동사로

돌아갑니다. 이 동사들은 예레미야서의 여러 곳에 그분의 심판 메시지와 구원 약속의 요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25장에 있을 것입니다. 31장에 있을 것입니다. 45장에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심판을 다루는지 구원을 다루는지에 따라 해당 동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선지자이자 구원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그의 메시지를 구조화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언약 불충실로 인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구원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분적으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Stuhlman은 다시 그의 책인 Order Amid Chaos에서 책의 전반부인 1장부터 26장, 또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의 허물고 뽑는 사역을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낡은 세상과 낡은 질서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뒤집으시고 그 대신에 언약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신뢰했던 것들이 1장부터 25장까지 헐리고 뽑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심으시는 것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추방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37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둘러싼 예레미야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후반부에는 건축과 새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훨씬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25장까지는 헐고 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책의 후반부인 26장과 52장에서 실제적인 허물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도시와 백성을 재건하고 다시 심으시는지,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나는 이 책을 더 나눌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반기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반기에 새로운 질서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더 구체적인 섹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앤드루 시트(Andrew Sheet)는 내가 읽은 예레미야서에 대한 최고의 신학 연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의 책 *A Mouthful of Fire*에서 예레미야서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지만, 전반부는 허물고 뽑는 내용을 다루고 후반부는 다시 세우고 심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서가 배열되고 구조화되는 더 구체적인 구분과 더 구체적인 방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시트(Andrew Sheet)는 그의 책 『불 한 입』에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삶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전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뼈에 불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것을 설교하고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단어의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여러 형태의 박해와 압제,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반영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Sheed는 예레미야서가 14~15개의 서로 다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표현의 다양한 형태로 소개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1장, 1장, 4절, 1장, 11절, 13장, 2장, 7장, 11장 등에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소개되는 큰 부분과 작은 부분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때로는 한 신탁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한 설교가 어디서 시작되고 다른 신탁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결정할 때, 종종 그러한 유형의 표현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구조적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책이 텍스트의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더 세분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은 본문의 이 세 가지 주요 부분에 대한 장 구분과 기본 구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구분은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신탁과 심판의 메시지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성에 내리실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26장부터 45장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로 예레미야의 삶에 관한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한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여행기로서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나올 표현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의 반응을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부정적인 반응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주요 부분은 46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전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판 메시지, 즉 유다가 경험하는 심판에서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해 설교한 메시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52장에는 추신이 있습니다. 부록입니다. 기원전 587~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날 때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로 사람들은 그 땅으로 돌아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유배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배,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레미야의 사역과 선지자로서의 그의 메시지를 확증하고 확증하는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의 부록이나 추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1부터 25까지, 26부터 45까지, 46부터 51까지의 세 부분을 최종 추신과 함께 이해하면 다시 혼돈 속에서 나오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여기에는 연대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기본적인 통일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예레미야의 심판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본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섹션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도 있을 것이고, 기소도 있을 것입니다. 고발은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어떻게 언약을 어겼습니까? 그게 비난입니다. 기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실 구체적인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에게 일어날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소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책 전체의 형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의 앞 부분인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느니라.

그들은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옹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한 가장 비열하고 절망적인 일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불충성함의 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죄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죄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불충실한 죄이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다른 모든 죄의 뿌리와 기초가 됩니다. 2장 20절은 책 전체에 걸쳐 등장할 이미지입니다.

내가 너희 멍에를 꺾고 너희 결박을 끊었으나 너희는 내가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창녀처럼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불충실한 아내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불성실한 창녀들이다. 우리 목사님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우리와 마주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기소는 7장에서도 이어진다.

나는 예레미야의 사역 중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가 그가 일어나 그의 유명한 성전 설교를 했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여러분은 이 성전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성약의 불성실로 인해 성전은 보니와 클라이드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10장, 또 다른 기소,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또 다른 설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 왔으며 이 우상은 수박밭의 허수아비처럼 무가치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입니다.

11장,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맡기신 책임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날 무렵, 11장 10절과 11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겼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이 피할 수 없게 하리라 책 첫 부분의 기소 개념을 보면 22장과 23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면서 22장에서는 유다 마지막 왕들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경건한 통치 아래에서 시작했지만, 매우 빠르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불경건한 통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지도력을 비난하십니다.

유다가 겪었던 문제들과 여러 면에서 유다의 국가 생활에 끼어든 죄는 하나님을 등진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23장에서는 그들의 선지자들을 기소하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시민 지도자들 못지않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특히 23장에서 선지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꿈, 생각, 관점을 반영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메시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분의 심판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 1장부터 25장까지는 기소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고 예레미야의 사역에서 회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명백해지면,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 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가져오실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는 매우 생생하고 강력한 시와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실 구체적인 유형의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이 선포되면 이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을 휩쓸고 남왕국을 공격하여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러한 비난이 시작되면서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러 내리실 특정한 나라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스터리를 더해줍니다. 지도에서 정치적으로 찾을 수도, 대화할 수도, 식별할 수도 없는 군대가 있지만,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군대를 가능한 가장 생생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그들은 응답하고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발과 고발 뒤에는 심판과 다가올 군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 4장과 5장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나팔을 불고 온 땅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모이고 견고한 성읍들로 가서 시온을 향하여 기를 세우고 도피하라 안심하고 지체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북방에서 재앙을 내릴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오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느니라

그는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곳을 떠났느니라. 너희 성읍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는 굶은 베를 입고 애통하며 통곡하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국가적인 재난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러 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새화된 도시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유다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맞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신비한 군대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4장 13절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시며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으니라.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망하였도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예루살렘 도시에 있을 수 있다면 그 당시 적의 공격을 받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

5장 15절과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와서 너희를 치게 하느니라.” 지속되는 국가입니다. 고대국가입니다.

그 나라는 당신들이 언어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력한 전사들이다.

그들이 너의 수확물과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아들딸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양떼와 소떼를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이 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읍들을 먹어치울 것이다. 그들이 칼로 너를 치리라.” 그래서 또 다시, 와, 이것은 끔찍하고 끔찍한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심판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형태를 취할지, 여기에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발표에 대한 묘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장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러 보내실 구체적인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25장은 다시 이 절의 결론 요약입니다. 책에서 중요한 장이다. 섹션 1에서 섹션 2로 우리를 연결하는 경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2511년 바벨론에 관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무하고 황무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그 나라의 바벨론 왕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포한 모든 말 곧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를 향하여 예언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의 가장 큰 히트작이라는 선집이 기원전 626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경고를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유형입니다. 주께서 기원전 605년에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쓰라고 명하실 때,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설교하신 모든 말씀은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설교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고발, 기소, 이것이 당신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곧 다가올 심판입니다. 그런 다음 26~45장에서는 새로운 자료 세트로 전환합니다.

주로 선지자의 생애에 관한 선지자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44장까지에서 우리가 이 책의 연대기와 가장 가까운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직후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레미야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날에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1장부터 25장까지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심판의 성취는 실제로 37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선지자의 생애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는 다시 한 가지 핵심 사상을 강조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배가 일어난 이유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설명 중 일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면에서든 그분의 언약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강하였음이니라 포로생활이 일어난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반대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끌려가고, 납치되고, 애굽으로 피난민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반영합니다.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경험한 모든 형태의 학대는 그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부되었는지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37장 1절과 2절에 이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이 특별한 이야기에서 26절부터 45절까지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37장 1절에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임을 기억하라 고니야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을 대신하여 유다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 백성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문제의 일부는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부분에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 특히 무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저항이 소용없다는 그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에 그를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년 동안 언약을 어겨왔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 왔지만, 그 죄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장 주목할만한 두 가지 예가 26장과 36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장은 7장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의 두 번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설교가 아니라면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의 반응과 반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집을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임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해주는 어떤 종류의 구체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26장의 성전 설교 직후,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지에 대한 바로 이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두 번째 대표적인 예는 3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자르고 불태우고 파멸시키는 여호야김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 말을 기록하고 성전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면 왕은 그것을 자르고 불에 태워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의 반응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이 파괴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37장부터 44장까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이유입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26장부터 45장까지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4장, 45장까지 분리해야 할 특정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위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 책을 함께 집필하면서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박해받고 반대받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끝내지 않으셨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되는 대신 하나님께서 장차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들은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메시지는 더욱 놀라운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불순종과 심판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더욱 밝고 희망적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책의 중심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장부터 51장까지 이 부분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섹션을 보면 이 섹션이 두 초강대국의 판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시작 부분에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유다 백성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작은 나라들과 민족 국가에 대한 심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들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서 초강대국인 이집트와 바벨론의 심판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나라도 너무 커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나라들과 국가들과 세력들과 제국들이 하나님께 응답한다면, 오늘날의 제국들과 위대한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실 정도로 작은 나라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종이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서 겪은 일들은 궁극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마지막 점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 갖고 계신 메시지가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30장부터 33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과 동일합니다.

30장 서두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한 후에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키리라. 즉,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위로서 33장 마지막에는 다시 이 약속을 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나라들의 심판을 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나라들 자체를 멸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또한 주님께서 그들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장

4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압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심판한 후에 너희의 곤경을 회복하리라 하셨느니라

49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 후에 너희의 복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는 이들 나라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완전한 파괴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0장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희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모여 울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묻고 이르기를 오라 결코 잊지 못할 영원한 성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진노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하신 일에 포함될 때 미래의 왕국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순서를 이해할 때 더 나은 방식으로 예레미야서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과 구원의 선지자이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누군가가 목사 안수 시험에서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를 묻는다면 그들이 심판과 구원을 설교한다고만 말하면 아마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매우 그렇습니다. 그분은 허무시고, 파괴하시고, 뽑으시지만, 심으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서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46장부터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 후에는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구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세션, 예레미야서 개요입니다.